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소주를 '쏘주'나 '췌주'라고 말해야 솟았이 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짜장면을 자장면이라 말하면 밥맛이 달아난다고 하는 이들도 많았다. 다행히 짜장면은 사전에 올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자장면이 표준이라고 오랜 세월 아무리 강요해도 끝내 말을 듣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항쟁(抗爭)의 결과다.

짜장면의 원어는 '짜장미엔'(炸醬麵)이다. 한데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된소리를 피하는 규정이 있고 그게 중국어에까지 적용된 것이 1989년이다. 이후 20여 년 동안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누구처럼 짜장면을 자장면이라 부르지 못해 왔다. 그리고 2011년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자장면이 아닌 짜장면이라는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때 짜장면과 함께 복수 표준어에 오른 말이 있으니 바로 '떡거리'라는 단어다. 이 말은 짜장면과는 달리 역사가 길지 않다. 1975년 배달말학회에서 일본말 '식량'(食糧)에 대비되는 우리말로 떡거리를 제시하면서 처음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말 조어법(造語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어학자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 나 또한 그런 이유로 떡거리의 허

용을 반대하는 글을 쓴 적도 있다. 떡거리가 말이 되면 읽을거리를 '읽거리'로, 씹을거리를 '씹거리'라 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때의 생각이었다. '말글의 원칙'이 바로 문법일진대 법칙에 예외가 많아지면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도 애를 먹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

'너무' 앞서가는 국립국어원

그럼에도 대중들은 떡거리라는 말에 환호했다. 국립국어원도 결국 손을 드는 수밖에 없었다. 나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더 이상 항거할 수 없었던 것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쓰게 되면 사투리도 표준말이 될 수 있다. 귀신도 모르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다는 '거시기'란 말이 바로 그런 예에 해당된다. 거시기는 원래 대표적인 전라도 사투리였지만 온 국민이 즐겨 쓰면서 지금은 버젓이 사전에 올라 우리말을 풍성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

사투리도 표준말로, 틀린 말도 맞는 말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곳이 국립국어원이란 곳이다. 최근 국립국어원이 그동안 부정적인 표현에만 사용이 가능하던 부사 '너무'를 긍정적인 표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전엔 '틀린' 표현으로 교열 대상이었던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는 말도 이제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너무'는 원래 '너무 어렵다' '너무 위험하다' 등처럼 부정적 의미와만 어울려 쓰이는 말이다. 따라서 긍정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너무 크다'고 하면 너무 커서 좋지 않다는 뜻이요 '너무 많다' 하면 역시 너무 많아서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당신이 너무 좋아'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예뻐' 등 언중(言衆)은 '너무'를 긍정적 의미로도 폭넓게 써 왔다. 심지어 '너무' 하나로도 모자라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예뻐' 등처럼 단어를 포개 쓰기까지 했다. 마침내 국립국어원도 '너무'가 '너무 많이' 쓰이는 언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말했다.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에서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라고 뜻을 풀이해 바꿈으로써 부정과 긍정, 모두에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국립국어원의 처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 짜장면의 허용은 경직된 사고(思考) 때문에 너무 늦었던 반면 '너무'의 경우 유연한 사고를 핑계로 너무 성급하게 허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말에 '아주'나 '정말' '매우' '무척' 등 긍정을 강조하는 어휘가 많은데다 '너무'를 남용한다면 이들 어휘는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표현이라도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표준어로 인정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많이 쓴다고 다 올릴 건가

잘못된 우리말을 쓰면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언젠가 표준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말이다. 이리다가는 회자(脞贅) : 좋은 일로 남의 입에 오르내림)과 구설(口舌 : 좋지 않은 일로 오르내림), 타산지석(他山之石 : 부정적인 대상을 통해 교훈을 얻음)과 귀감(龜鑑 : 거울로 삼아 반란을 만한 모범), 장본인(張本人 : 어떤 나쁜 일을 꾀하여 일으킨 사람)과 주인공(主人公 : 어떤 좋은

일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애써서 누가 가려 쓰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국립국어원이 '몸매가 착하다' '가죽이 착하다' 등에 대해서도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는 사실이다. '짜장면을 자장면이라 그리 오랜 세월 고집하더니 '몸매가 착하다'는 표현이 언제부터 쓰였다고 납득 받아들인단 말인가. 짜장면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어느 트위터 사용자의 말이 사태의 정곡(正鵠)을 찌른다.

언어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세월 따라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언어의 가변성(可變性)은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말을 바르게 쓰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어문 규범과 언어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유행어와 표준어마저 구분하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너무'의 용법 확대와 '착한 몸매' 식의 표현 인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김수희의 노래 '너무합니다'가 떠오르는데, 우리말 우리 글을 아름답게 가꾸고 바르게 지켜야 하는 곳이 바로 국립국어원 아닌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 내년 착공 무산

'차량선정 문제' 설계용역 중단...백운고가 철거 예산 미확보 등 악재 겹쳐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2016년 착공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차량선정 문제 등으로 지난 3월 이후 기본설계용역이 중단된데다 푸른길 구간 훼손 논란, 백운 고가차도 사업비 미확보 등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간 건설 찬반논란 끝에 재추진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설계용역이 지난 3월부터 4개월 넘게 중단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월 끝났어야 할 기본 계획설계가 현재 70%대의 공정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2호선 차량 선정부터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는 차량 2량 편성(정원 153명)이 반영됐으나 러시아워 시간대 등을 고려해 수송능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 중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차량 바퀴도 고무바퀴와 철제바퀴를 놓고 논의 중이다.

역사 규모도 시민 편의보다는 화장실 등 각종 시설을 최소화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포함된 백운광장 고가 도로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비 확보도 풀어야 할 큰 과제다.

광주시는 내달 남구 백운광장 교차로(고가) 개선을 위한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철거·건설 사업비 29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는 해당 비용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로 포함할 경우 사업비 초과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상태다.

정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295억)의 50%를 지원받지만, 사업 선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올 상반기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에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89년 준공된 백운 고가는 폭 15.5m(양복 4차선), 길이 385.8m로 하루 평균 10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건설 당시 경전선 철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급경사, 급커브로 시공된 탓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교통 위험시설로 꼽힌다.

푸른길 공원 훼손 논란도 큰 걸림돌이다.

시는 환경단체 2호선 구간과 관련한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라 대안 모색, 예산절감을 위한 비(非)시가지 구간의 지상고가 반영 등을 검토 중이다. 시는 푸른길 공원을 비껴서 시공할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른 시일 내에 논란을 마무리하고, 중단한 기본설계를 다시 할 계획이지만 올 연말 내 용역이 마무리 될 불투명하다.

여기에 실시설계에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 하반기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남구·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km로 사업비 1조9053억원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품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신중히 진행하다 보니 전체적인 일정이 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면적 15%에 150만 몰려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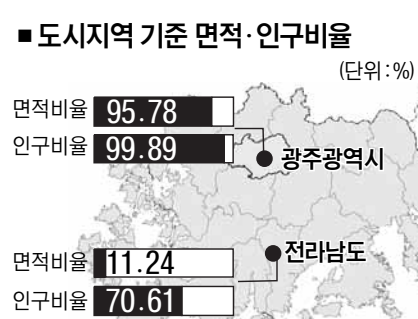
전남 133만명은 1%에

'도시지역'이 전체면적의 9%를 차지하는 광주에서 150만 시민들은 전체면적의 15%가량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0만 인구의 전남은 도시지역이 전체면적의 11%에 불과했다. 하지만 70%에 해당하는 133만명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몰려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남 전체면적의 1%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시의 일반 현황과 용도지역·지역·지구,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담은 '2014 도시계획현황통계'를 내놓았다.

통계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

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면적은 광주의 경우 전체면적(501.2km)의 95.8%에 해당하는 480.1km였다.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은 74.8km, 상업지역 9.0km, 공업지역 23.6km, 녹지지역 372.7km로 조사됐다. 광주인구 가운데 99.89%는 도시지역에 거주했는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광주 전체 면적의 14.9%에 해당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 체계적인 개발과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세분한다. 전남 인구 가운데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70.6%로 집계됐다. 133만명이 도시지역에 사는 것이다. 전남의 도시지역은 전체면적(1만5371.3km)의 11.2%인 1727.6



km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168.8km, 상업지역 21.1km, 공업지역 163.9km, 1174.5km, 미지정지역 199.3km였다. 결국 전남 인구의 70%는 전남 전체 면적의 1%에 거주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4705만명으로 전체 인구(5132만명)의 91.66%였다. 통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인구의 90% 이상이 국토의 2.44%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사는 것이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농업·수산 정책자금 금리 최저 1.8~3.0%로 인하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현재 연 3~4%인 농업 및 수산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최저 1.8~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수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는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농·어업인은 1.8%, 조합 등 법인은 2.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 시 농·어업인은 2.5%로, 조합 등 법인은 3.0%로 각각 적용 금리가 낮아진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금리 인화로 변동금리로 따지면 연 837억원, 고정금리로 따지면 연 431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돼 농·어업인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 인하는 다음달부터 즉시 적용되고, 변동금리 인하는 약 3개월이 걸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적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투데이 경매

주월동 아파트단지내 최고상권
면적점, 카페, 학원등 입점추천
지하1층~지상4층
대지 236㎡ 건물 594.8㎡
감정가 4억 5천 3백
최저가 4억 5천 3백

전남 담양군 삼만리
담양 예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식품가공공장
(단층건물 4동 기계기구 포함)
대지 5636.5㎡ 건물 873㎡
감정가 9억 8백
최저가 6억 3천 6백

전남장성군 북이면 식품공장
백양사 IC인접 교통입지우수
2012년 신축건물 투자적합
NPL가능, 공장 창고 임대가능
대지 9341㎡ 건물 2031㎡
감정가 41억 4천 7백
최저가 11억 9천

KT&G 본건
OB공정
양산동 로케트전기부지
공장용지 81453㎡ (24682평)
일반공업지역
감정가 27억4천
최저가 152억

고수의 창출 가능!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